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책단 과장 여한구(02-3497-1783), 이주영사무관(1788), 정지선사무관(1792), 강성국사무관(1789)

「TPP 전략포럼(10.8, 목)」
- 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 -

□ 10.8(목) 「TPP 전략포럼(의장: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시 논의된 주제발표 핵심 요약 및 민간 전문가 주요 토론내용을 배포합니다.

<주제발표 핵심요약>

1 TPP 타결의 의의 및 경제적 영향(허윤 서강대 교수)

○ TPP 타결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과 정치·외교 측면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이미 TPP 참여국가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TPP 참여로 인한 관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규범 개선·누적 원산지규정 등 비관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은 선진화된 TPP 규범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활성화로 역내 교역 촉진 가능

○ TPP 가입이 현실적으로 참여국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1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동안 엄밀한 TPP 협정문 분석과 대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신중히 이해득실을 따져 TPP 대응 전략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

- 또한, TPP 가입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 TPP 참여 실기론 관련, 당시 한-미 FTA, 한-중 FTA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전략적 실수가 아닌 정책적 선택이라고 보며, 그런만큼 한-중 FTA의 조기 비준이 필요함을 강조

2 TPP 규범 협상내용 및 의의(이재민 서울대 교수)

○ TPP는 디지털 경제, 국영기업, 수산보조금 등 새로운 글로벌 경제 이슈를 포괄하는 21세기형 글로벌 신 통상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 TPP 타결에 따른 언론 보도 및 USTR이 공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TPP에 새롭게 도입된 대부분의 규범들은 기존부터 WTO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임을 강조

○ TPP에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해서는, 수용시 예상되는 국내적 영향과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되, TPP규범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국내 정책,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

<주요 토론내용>

□ 박태호 서울대 교수

○ 우리는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TPP에 대해 너무 조급히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이 2~3년간 늦어져도 무역전환효과는 크지 않음

○ 따라서, 추가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 한-미 FTA 대비 추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규범, 사실상의 한-일 FTA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하여 의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은 TPP 발효시까지 관세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양자 FTA를 통해 관세인하 혜택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기존 FTA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 안덕근 TPP 전략포럼 의장

○ 이미 한미 FTA 등을 체결해 놓은 우리나라는 TPP타결로 시장접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TPP가 발효되기 전 1~2년이 Golden time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가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규범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 놓는 것이 중요

□ 정인교 인하대 교수

○ 이미 세계최고수준의 FTA망을 이행시킨 우리나라로서는 TPP 관련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바, TPP참여의 득실을 저울질해 온 지금까지의 정책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TPP에 대한 대응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도 늦지 않으며, 경제효과 및 정치경제적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참여여부와 시점을 결정해야 할 것

□ 이한영 중앙대 교수

○ TPP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등 관련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TPP 가입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등 일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박노형 고려대 교수

○ TPP 규범이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등에서 한미 FTA Plus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상당수준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어, 향후 구체적 문안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한 후 가입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

□ 송영관 KDI 연구위원

○ 지금까지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바, 한국의

TPP 가입이 늦어지면 누적원산지 활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TPP와 같은 다자FTA가 양자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오며, TPP 12개 국가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서 수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은 TPP의 조속한 참여가 필요

□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기존 FTA보다 높은수준의 선진 규범을 도입하게 되고 개별 FTA를 TPP로 묶음으로서 이행이 보다 간소화되어 기업의 FTA 활용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여한구 과장(☎ 02-3497-1783), 이주영사무관(☎ 02-3497-1788), 정지선사무관(☎ 02-3497-1792), 강성국 사무관(☎ 02-3497-1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